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필리핀, 쌀, 수입쿼터, 폐지, 개방, 관세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필리핀, 쌀, 수입쿼터, 폐지, 개방, 관세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1995. 01. 01.
필리핀 WTO 가입
10년간 쌀 관세화 의무
유예로 수입쿼터제 허용

2005. 07. 01
필리핀 2012년까지
관세화 의무 유예,
관세 40%로 인하

2014. 06. 19
MMA 2.3배 증량,
관세 35%로 인하 등의
조건으로 Waiver 승인

2017. 06. 30.
쌀 수입쿼터제 폐지,
관세화로 전환하며 쌀
시장 전면 개방 예정

핵심이슈
도출

“필리핀 6월 30일 쌀 수입쿼터제 폐지, 쌀 시장 전면 개방 예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필리핀 6월 30일 쌀 수입쿼터제 폐지, 쌀 시장 전면 개방 예정

필리핀 정부는 2회 연장을 끝으로 2017년 6월 30일 쌀 수입 쿼터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관세화 원칙’에 따라 농산물도 시장이 개방이 되었으나, 필리핀은 한국, 일본과 함께 관세화를 유예하고 저율의 관세로 MMA(최소시장접근)에 따라 쌀을 수입하였다.

2004년 10년간의 1차 유예가 만료되었지만, 2005년에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농업 협정 부속서 5의 8항’에 의거해 WTO와 추가 협상을 하였고, 관세율 인하 등의 조건으로 2012년 6월 30일까지 7년간 2차 유예를 승인 받았다.

2012년 3월 부터 필리핀은 3차 쌀 관세화 의무 유예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번번히 부결되었다. 그러던 2014년 6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근거한 Waiver(의무 면제)가 승인됨에 따라 필리핀은 MMA 2.3배 증량(35만 톤 → 80만 5000톤), 관세 인하(40% → 35%),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가별 쿼터 제공의 조건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관세화 의무가 면제되었다.

관세화 의무 면제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필리핀 쌀 시장은 수입 쿼터가 폐지되고,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RA 8178)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는 법안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 개정안에 값싼 수입 쌀의 대규모 유입을 막는 조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전에 필리핀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국가경제개발청)는 대통령에게 수입 쿼터가 폐지되고 관세화 전환될 경우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필리핀은 현재 국가별 쿼터(Country Specific Quota)물량을 제외하고는 Omnibus 방식을 도입해 국가에 상관없이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 또한 2007년 부터 필리핀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중립종은 프리미엄 쌀이며, 발전된 도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요가 예측된다. 2017년 6월 30일 수입쿼터제 폐지로 필리핀의 쌀 시장 전면 개방되고, 이에 따라 관세율 변화가 예상되므로 향후 법령(RA 8178)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리핀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gov.ph/2015/11/05/executive-order-no-191-s-2015/>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